

『황금성인전』 중세 프랑스어 번역사 연구를 위한  
서지학적 고찰  
— BnF fr. 241 필사본을 중심으로 —

김 준 한  
(고려대)

## 1. 머리말

『황금성인전(또는 황금전설)』(*Legenda aurea*)이라는 제목으로 더 널리 알려진 야코부스 데 보라기네(Jacobus de Voragine)의 『성인전 또는 롬바르디아의 역사』(*Legenda sanctorum alias Lombardica hystoria*)는 13세기 후반 완성된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중세 유럽 전체로 확산된다. 중세 시기에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히고 필사된 중세 최고의 ‘베스트 셀러’ 작품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까지 보존된 라틴어 필사본의 수만 1천종이 넘으며, 인쇄술 발명 이후 성경을 제외한 첫 번째 출판물이 바로 『황금성인전』이었다는 사실도 중세에 이 작품이 차지하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14~15세기의 성인전 문학과 성사극의 소재로 사용되며 중기프랑스어

(moyen français) 시기 종교문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던 『황금성인전』은 16세기 중반 이후 ‘황금전설’이 아닌 ‘납전설’(Légende de plomb)<sup>1)</sup>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평가절하되기 시작해 19세기 중반까지 완전히 잊혀진 작품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19세기의 중세에 대한 관심 속에서 1846년 테오도르 그레세(Theodor Graesse)에 의한 라틴어 판본<sup>2)</sup>이 출간되면서 『황금성인전』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1902년 2권의 번역서<sup>3)</sup>가 동시에 출간되어 『황금성인전』은 중세 문학, 중세 가톨릭 신앙 연구 내에서의 위상을 일정 부분 되찾게 된다. 하지만 그레세 판본과 1902년의 프랑스 번역들은 라틴어 원전에 대한 현대문학 방법론에 입각한 검증이 결여된 저술들이었으며, 라틴어 판본과 프랑스어 번역 모두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 1998년 조반니 파올로 마조니(Giovanni Paolo Maggioni)의 라틴어 판본<sup>4)</sup>, 2004년 알랭 부로(Alain Bourreau)의 프랑스어 번역<sup>5)</sup>이 나오으로써 드디어 문헌학적 엄밀성을 갖춘 텍스트를 바탕으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후 마조니 판본과는 다른 관점에서 간행된 브루노 호입틀리(Bruno Häuptli)의 라틴어 판본<sup>6)</sup>이 2014년에 출간되는 등 라틴어 저본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황금성인전』 연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1) J. Le Goff, *A la recherche du temps sacré*, Paris, Perrin, 2011, p. 9.

2) *Jacobi a Voragine Legenda aurea vulgo Historia Lombardica dicta*, Dresde, Lipsiae. 이후 1850년과 1890년에 제2판과 제3판으로 개정판이 나온다.

3) Jacques de Voragine, *La Légende dorée*. Trad. J.-B. M. Roze, 2vol., Paris, GF-Flammarion, 1967 (1re éd., 3 vol., Paris, Edouard Rouveyre, 1902) ; Jacques de Voragine, *La Légende dorée*. Trad. Teodor de Wyzewa, Paris, Seuil, 1998 (1<sup>re</sup> éd., Paris, Perrin, 1902).

4) Iacopo da Varraze, *Legenda aurea*. Edizione critica a cura di Giovanni Paolo Maggioni, Florence, 1998 ; rééd. corrigée en 1999. 이후 2007년에 프란체스코 스텔라 Francesco Stella의 이탈리아어 번역이 추가된 대역본 형태의 개정판이 새로 나왔다. 본고의 인용은 모두 2007년판에 의거한 것이다.

5) Jacques de Voragine, *La Légende dorée*.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Alain Bourreau, Paris, Gallimard, «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 2004.

6) Jacobus de Voragine, *Legenda aurea - Goldene Legende*. Ed. et trad. par Bruno W. Häuptli, Freiburg, Herder, 2014.

하지만 이러한 발전 양상은 라틴어판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랑스어 현대 번역에 국한된 성과이며, 『황금성인전』의 유럽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세 프랑스어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도 연구를 위한 저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황금성인전』 중세 번역 연구를 위한 정보화 작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15세기 후반 『황금성인전』 인쿠나블라(*incunabula*) 인쇄본 제작의 저본이 되며, 작품이 여러 유럽 언어로 번역되어 전파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장 드 비네(*Jean de Vignay*)의 14세기 번역을 담은 필사본 중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fr. 241의 분석을 통해 현재의 『황금성인전』 프랑스어 계통 연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황금성인전』 주요 필사본의 정보화 현황

많은 경우에 있어 중세 라틴 문헌의 중세 프랑스어, 중세 이탈리아어 등 지역어(*langue vernaculaire*)로의 번역 연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에 대한 비판정본(*édition critique*)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황금성인전』 중세 프랑스어 번역사 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출발 텍스트인 라틴어 원전 정보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세 번역 텍스트들의 경우 아직도 필사본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 2.1 라틴어 판본

번역자(*translateur*)<sup>7)</sup>가 번역에 이용한 모델, 아니면 최소한 저본 필사본이 속하는 그룹을 알아야 출발 텍스트에 대한 번역의 충실도를 평가하고, 번역기

7) ‘번역하다’, ‘번역’, ‘번역자’에 해당하는 현대 프랑스어 어휘 *traduire*, *traduction*, *traducteur*는 1539년 로베르 에스티엔 Robert Estienne과 1540년 에티엔 돌레 Étienne Dolet에 의해 등장하게 된다. 중세 프랑스어에서는 *translater*, *translation*, *translateur*를 사용한다. (김준한, 「프랑스 중세의 번역과 번역자」, 『프랑스문화예술연구』 52, 2015, p. 37)

법이나 오류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황금성인전』의 경우, 중세 라틴어 문헌 번역 연구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인 라틴어 텍스트 비판정본(*édition critique*)의 부재 문제는 다행히 마조니와 호입틀리에 의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비판본이 연속적으로 출간됨으로써 해소되었다<sup>8)</sup>. 『황금성인전』의 프랑스어 계통(*branche française*) 연구는 무엇보다도 번역사 연구의 성격을 갖는 만큼 라틴어 저본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마조니와 호입틀리에 의한 근간 라틴어 판본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세기 중후반의 그레세 판본 이후 새로운 라틴어 정본이 나오기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1천종이 넘는 라틴어 필사본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바바라 플라이트(*Barbara Fleith*)는 1991년 현존하는 모든 『황금성인전』 라틴어 필사본들의 계통을 확립하고 목록화하는 데에 성공했으며<sup>9)</sup>, 1993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본화 작업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sup>10)</sup>, 결국 『황금성인전』 라틴어 정본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현존하는 라틴어 필사본들의 계통 수립과 목록화만 해도 단일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 서지학 연구 중 가장 많은 필사본들을 다룬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 성과였다. 하지만 준비 작업이 아무리 체계적이었다 할지라도 1천종이 넘는 필사본을 기반으로 한 비판정본의 확립은 애초에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중세 라틴어 문헌학자인 조반니 파올로 마

8) 그레세 판본의 문제점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언급이 있었다. 문제점과 오류들을 부각시키다 보니 지나치게 그레세판을 폄하하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제까지 그레세판을 근거로 한 연구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헤이머와 러셀의 “serviceable if not entirely accurate”(R. Hamer et V. Russel, « A Critical Edition of Four Chapters from the Légende dorée », *Medieval Studies* 51, 1989, p. 130)라는 표현이 그레세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9) B. Fleith, *Studien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der lateinischer Legenda aurea*, Bruxelles, Société des bollandistes, 1991.

10) B. Fleith, « Le projet d'édition critique de la *Legenda aurea* », *Le Moyen français* 32, 1993, pp. 49-52.

조니는 검토 대상 필사본의 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황금성인전』의 정본화 계획을 세운다. 야코부스 데 보라기네가 평생 제노바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토의 범위를 제노바를 중심으로 한 롬바르디아 지역 위주로 한정하고<sup>11)</sup>, 『황금성인전』 작성이 시작된 1260년대부터 야코부스가 선종한 1298년을 전후한 시기(13세기말~14세기초) 사이의 필사본 70종을 정본화를 위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70종의 필사본들 가운데 『황금성인전』 필사전통(tradition manuscrite)에서 가장 오래되고 야코부스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필사본 30종<sup>12)</sup>을 대상으로 대조(collation)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40종의 필사본들을 분류했다. 필사본들의 대조를 통해 마조니는 야코부스가 1260년대초에 『황금성인전』 편찬을 시작해 1298년 임종 직전까지 수정·증보 작업을 계속했음을 증명했으며, 『황금성인전』은 짧은 초기 버전  $LA_1$ (*Legenda aurea 1*)과 저자의 마지막 의지를 담은 증보판  $LA_2$ (*Legenda aurea 2*)의 두 단계로 크게 구별되고, 두 버전 사이에는 동일한 유형의 텍스트 손상을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필사본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sup>13)</sup>.

『황금성인전』 최종 단계 텍스트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sup>14)</sup> 마조니판은  $LA_2$  단계를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는 다음 2종의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 
- 11) 일반적으로 마조니 정본을 ‘롬바르디아판’이라고 부르며 마치 롬바르디아 지역의 필사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독일 등 롬바르디아 외 지역의 주요 13세기 필사본들을 함께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호입틀리 판본의 저본으로 사용된 파리 필사본(Z)과 뮌헨 필사본(H)도 마조니가 대조한 최초 30종의 필사본에 포함되어 있다. (G. P. Maggioni, *Ricerche sulla composizione e sulla trasmissione della “Legenda aurea”*, Spoleto, Centro Italiano di Studi sull’Alto Medioevo, 1995, pp. 7-8)
- 12) «tra i più antichi e tra quelli provenienti da zone in qualche modo connesse con la biografia di Iacopo da Varazze» (*Ibid.*, pp. 3-4)
- 13) «famiglie [...] ‘stabili’, caratterizzate dalla presenza di corrottele comuni lungo tutto il corso dell’opera.» (*Ibid.*, p. 4)
- 14) «La presente edizione intende definire il testo corrispondente a quello che presumibilmente è l’ultimo stadio della cosiddetta *Legenda aurea*.» (G. P. Maggioni (éd.), *Legenda aurea*, 2007, p. XXII)

A = Milano, Biblioteca Ambrosiana, C 240 inf. (Bologna, 1272-1276)

C = Milano, Biblioteca Ambrosiana, M 76 sup. (Genova, 1292-1299)

위 2종의 필사본을 바탕으로 역시  $LA_2$  단계를 담고 있는 다음 3종의 필사본들과 대조·수정함으로써 텍스트의 완결성을 높였다.

M = Monza, Archivio della Basilica, 7b-24 (olim k 2-125) (XIII sec.)

Q = Novara, Archivio Storico Diocesano, Bibl. Capitolare XXIV (XIII-XIV sec.)

Re = Città del Vaticano,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Reg. 485 (XIV sec.)

또한 초기 버전  $LA_1$ 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각 페이지 하단에 위치하는 이중의 주석 중 두 번째 위치에  $LA_1$ 의 텍스트를 가장 잘 보존한 필사본 V의 이형태들을 제시하고, V의 누락과 이형태를 E를 활용해 검증한다.

V = Padova, Biblioteca Universitaria, ms. 1229 (XIII sec.)

E = Milano, Biblioteca Ambrosiana, A 17 inf. (XIII sec.)

마조니의 판본이 저자에 의해 완성된 최종 텍스트의 재구를 목표로 하는 라흐만(K. Lachmann) 방식의 정본화를 추구한 것이라면, 호입틀리 역시 원래의 목표는 『황금성인전』의 ‘진정한 원래 상태’(état originel et authentique)를 복원한다는 라흐만 방식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었지만<sup>15)</sup>, 애초의 계획을 상당 부분 축소·수정하여<sup>16)</sup> 존재하는 필사본들 중 가장 오래되고 텍스트 역시 우수한 2종의 필사본(codex optimus)을 충실히 재현해 낸 베디에(J. Bédier) 방식의 정본을 만들어 내게 된다<sup>17)</sup>. 호입틀리는 『황금성인전』 필사본들 중에 마조니의

15) A. Boureau, *op. cit.*, p. LI

16) 알랭 부로(*op. cit.*, p. LI)와 자비네 나르Sabine Narr(*Die Legende als Kunstform*, 2010, p. 40, note 121)는 호입틀리가 『황금성인전』 최초의 상태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8권에 달하는 라틴어-독일어 대역판본을 준비중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2014년에 출간된 호입틀리판은 2권(2447 p.) 분량이다.

17) 중세 텍스트에 대한 정본화 작업 방법은 크게 ‘라흐만 방법’과 ‘베디에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카를 라흐만이 성경 정본화를 위해 사용한 라흐만 방법론은 존재하

방식대로 스테마 분류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황금성인전』 라틴어 필사본 중 가장 초기의 것에 속하면서 텍스트의 완결성이 공인된 다음 2종의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sup>18)</sup>.

Z =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Nouv. acq. Lat. 1800, datiert 1281.

H = München, Bayerische Staatsbibliothek, clm 13026, datiert 1282.

이 외에도 마조니 판본에 사용된  $LA_2$  단계의 필사본 A, C, M, Q를 참고해 텍스트를 검증한다. 마조니가 활용한  $LA_2$  필사본 Re는 활용하지 않으며,  $LA_1$  필사본 V와 E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호입틀리 판본의 외형적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황금성인전』의 정본 역할을 해온 - 즉 가장 익숙한 - 그레세판의 구성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다. 챕터 구성에 있어서도 저본 필사본이 아닌 그레세판의 순서를 우선시하고, 파리나 뮌헨 필사본에 존재하지 않는 그레세판의 챕터들을 보충해 넣기도 했다<sup>19)</sup>. 해당 챕터들이 파리와 뮌헨 필사본 등 초기 문헌들에는 등장하지 않을뿐더러 야코부스의 텍스트도 아니라는 점에서<sup>20)</sup> 이 챕터들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레세판을 따라 보충한 5개의 챕터를 제외하면 호입틀리판은 마조니판과 거의 동일한 챕터 구성을 갖는다. 다만 마조니판의 성 시로(San Siro = Saint Syr)<sup>21)</sup> 챕터가 호입틀리판에 빠져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제노바의 수호성인

---

는 필사본들을 토대로 원저자가 생산한 텍스트를 재구해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 조제프 베디에 방법론은 존재하는 필사본 중 가장 우수한 것을 저본으로 삼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실제 정본화 작업 과정에서는 두 방법론의 절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18) B. Häuptli (éd.), *op. cit.*, pp. 60-64.

19) 48 성 소피아와 세 딸들(De sancta Sophia et tribus filliabus ejus), 52 성 티모테우스(De sancto Timotheo), 64 성 파비아누스(De sancto Fabiano), 66 성 아폴로니아(De sancta Apolonia), 71 성 보니파키우스(De sancto Bonifacio)

20) B. Häuptli (éd.), *op. cit.*, p. 648, p. 700, p. 901, pp. 908-909, pp. 976-977.

21) 78장(마조니, 부로판 기준)의 성 시르 Saint Cyr(*lat.* Quiricus)와 구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이탈리아어 표기 '시로'로 적는다.

성 시로에게 각별한 애착을 가졌던 야코부스 데 보라기네는 제노바 대주교로 임명된 다음 해인 1293년에 특별히 성 로렌초 대성당에서 관구 공의회(concile provincial)를 소집해 성 시로의 유골이 진짜임을 확인하게 하였으며<sup>22)</sup>, 같은 해에 성 시로전을 쓰기도 했다<sup>23)</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 시로전이 포함된 『황금성인전』은 오로지 13세기말에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작성된 필사본들 뿐이며<sup>24)</sup>, 마조니가 사용한  $L_4$  단계의 필사본들 중에서는 오직 C와 M에만 나타난다는 점이다<sup>25)</sup>. 즉 성 시로 챕터가 추가된 텍스트가  $L_4$  단계 중에서도 최종 버전의 성격을 갖는다는 말이 된다. 롬바르디아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 전파된 『황금성인전』 텍스트는 이 최종 버전이 완성되기 이전 상태의 것들이었다. 『황금성인전』 주요 유럽 버전들의 구성과 텍스트 내 이형태들을 검토해 보면 성 시로전이 추가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몇 차례에 걸쳐 조금씩 다른 버전들이 유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조니와 호입틀리 판본은 『황금성인전』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9세기에 『황금성인전』이 재발견되고 그레세판이 나온 이후 거의 150년 만에 드디어 신뢰할 수 있는 라틴어 원본 텍스트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황금성인전』의 수많은 필사본과 인쇄본들의 작품 구성과 텍스트 사이의 선후관계 등과 관련된 여러 난제들을 해소할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sup>26)</sup>. 특히 장 드 비네의 『황금성인전』 중세 프랑스어 번역 연구에 있어서, 장 드 비네가 사용한 라틴어 저본 텍스트와 라틴어 필사본 Re, V, E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황금성인전』의 중세 프랑스어 수용 및 번역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종의 라틴어 필사본과 중세 프랑스어 번역 BnF fr. 241 필사본 사이의 관계에

22) J. Le Goff, *op. cit.*, p. 17 ; A. Boureau, *op. cit.*, p. 1281.

23) A. Boureau, *op. cit.*, p. 1281. 하지만 르 고프는 성 시로전의 작성년도를 1283년으로 적고 있다(J. Le Goff, *op. cit.*, p. 17). 어느 경우이든 성 시로전의 집필은 『황금성인전』이 롬바르디아 지방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된 이후의 일이다.

24) A. Boureau, *op. cit.*, p. 1280.

25) B. Ferrari, «La Légende dorée dédiée à Béatrice de Bourgogne : premières hypothèses sur le modèle latin», 2008, p. 406.

26)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본고 3.2 후반에서 다루게 될 순교자 성 페트루스 챕터를 들 수 있다.

대해서는 본고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 2.2 중세 프랑스어 번역 텍스트

총 11종의 『황금성인전』 중세 프랑스어 개별 번역(완역 9종, 부분역 2종) 가운데 『황금성인전』 중세 번역사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것은 14세기 장 드 비네(Jean de Vignay)의 번역이다. 장 드 비네 이외에는 장 블레(Jean Belet(h))의 번역만이 4종의 필사본으로 전해지며<sup>27)</sup>, 나머지 번역들은 모두 1~2종의 필사본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장 드 비네의 중세 프랑스어 번역은 필사본만 32종이 보존되어 있다. 헤이머와 러셀은 이 필사본들을 a(19종), b(10종), c(3종) 타입으로 분류하는데<sup>28)</sup>, 항목의 추가나 변경, 텍스트의 수정 없이 라틴어본의 구성과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해 번역한 유형이 a 그룹에 속하는 필사본들이며<sup>29)</sup>, BnF fr. 241 필사본도 이 그룹에 속한다.

장 드 비네의 번역을 수록한 32종의 필사본 중 현재까지 수록 텍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화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고 개별 성인전 몇 종에 대한 비판본이 나왔을 뿐이다.

### Sainte Marie l'Egyptienne (éd. P. Dembowski)<sup>30)</sup>

- 27) 장 블레의 「성 도미니크전」 번역을 담고 있는 4종의 필사본 텍스트(D. J. Cochrane, *The Lives of Saint Dominic in Medieval French and their Relation to the Latin Sources*, 2013)를 검토한 결과, 번역문 자체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필사본들 모두 구나 문장 차원의 잦은 누락 등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집트의 성 마리아전」 번역 비교분석(김준한, 「「이집트의 성 마리아전」 - 장 블레와 장 드 비네에 의한 중세프랑스어 번역 비교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50, 2015, pp. 87-128)을 통해서도 필사본의 완결성이나 번역 텍스트의 완성도 모두에서 장 드 비네의 번역이 확실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 28) R. Hamer et V. Russel, «A Critical Edition of Four Chapters from the Légende dorée», *Medieval Studies* 51, 1989, pp. 130-204.
- 29) b : 177 챕터로 구성된 원래 구성 다음에 ‘Festes nouvelles’이라고 불리는 46편의 챕터가 추가된 1402년 장 골랭Jean Golein 버전 유형 ; c : 챕터의 순서가 달라지고, 새로운 챕터의 추가, 기존 챕터의 삭제 등 구성이 달라지고, 텍스트 자체에도 변화가 생김
- 30) P. F. Dembowski, *La Vie de sainte Marie l'Egyptienne : versions en ancien et en*

- 파리, BnF fr. 20330 (fol. 90v-91v) ; 르 푸이-앙-블레(Le Puy-en-Velay), Grand Séminaire, Vie des saints (fol. 87v-88v)<sup>31)</sup> : 장 블레 번역
- 파리, BnF fr. 241 (fol. 96v-97v) : 장 드 비네 번역
- 피렌체, Bibl. Laurentiana, Med.-Pal. 141 (fol. 124v-125r) : 역자 정보 없음

**Saint Dominique (éd. D. J. Cochrane)<sup>32)</sup>**

- 런던, British Library Add. 17275 (fol. 173v-187r) : 장 블레 번역
- 르 푸이-앙-블레, Grand Séminaire, Vie des saints (fol. 150v-160v) : 장 블레 번역
- 파리, BnF fr. 185 (anc. 6845, Colbert 581) (fol. 240v-245v) : 장 블레 번역
- 파리, BnF fr. 20330 (anc. St.-Victor 12) (fol. 184v-192r) : 장 블레 번역
- 파리, BnF fr. 241 (anc. 6888) (fol. 188v-195r) : 장 드 비네 번역

템보우스키와 코크란 모두 『황금성인전』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다. 템보우스키는 중세 프랑스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된 「이집트의 성 마리아전」 소재의 텍스트들을 필사본별로 제시한 것이며, 코크란 역시 템보우스키의 작업 개념을 「성 도미니크전」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 두 연구는 비판정본 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구두점을 추가한 BnF fr. 241 텍스트의 전사(transcription) 성격을 갖는다.

현재로서는 장 드 비네 번역 텍스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비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4개의 챕터를 대상으로 32종의 필사본을 대조해 완성한 헤이머와 러셀<sup>33)</sup>의 연구가 유일하다<sup>34)</sup>.

*moyen français*, Genève, Droz, 1977, pp. 263-279.

- 31) 편자 템보우스키에 따르면 파리와 르 푸이-앙-블레 필사본은 완전히 동일한 텍스트를 담고 있다고 한다(“le textes qu'ils offrent est absolument identique”, P. Dembowski, *op. cit.*, p. 263). 이는 「성 도미니크전」 필사본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 32) D. J. Cochrane, *The Lives of Saint Dominic in Medieval French and their Relation to the Latin Sources*. Thèse,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2013, pp. 113-183 (trad. de Jean Beletth) ; pp. 250-268 (trad. de Jean de Vignay)
- 33) R. Hamer et V. Russel, *op. cit.*
- 34) «La seule véritable édition critique de la version de Jean de Vignay» (ARLIMA - [http://www.arlima.net/il/jean\\_de\\_vignay.html#leg](http://www.arlima.net/il/jean_de_vignay.html#leg) - 2016년 8월 21일 참고)

Saint Nicolas : BnF fr. 241, fol. 10v-13r

Saint Georges : BnF fr. 241, fol. 101v-103v

Saint Barthélemy : BnF fr. 241, fol. 219r-222v

La Fête de tous les saints : BnF fr. 241, fol. 291r-295r

편자들은 『황금성인전』 전체 177개의 챕터 가운데<sup>35)</sup>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4군데에서 골고루 텍스트를 선정했으며, 동시에 평범한 기술이 주를 이루는 성인전 챕터 3개(Nicolas, Georges, Barthélemy)와 함께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검토 대상 필사본들에 전사 오류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의 축제’를 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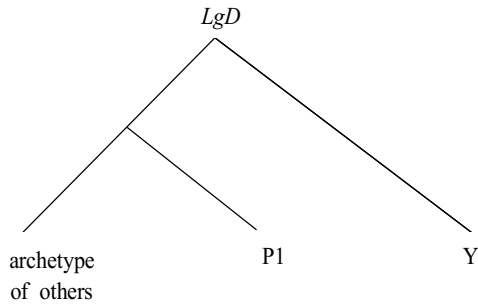
헤이머와 러셀의 논문을 통해 드러난 장 드 비네 번역 연구의 큰 난점은 장 드 비네 번역을 담고 있는 현전 필사본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테마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헤이머와 러셀이 보여주듯이 장 드 비네 필사본들은 챕터마다 상이한 스테마로 분석되어 필사본 단위의 스테마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36)</sup>. 32종 필사본들을 챕터별로 비교해 친족관계를 밝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sup>37)</sup>.

35) 『황금성인전』의 주요 텍스트들은 177개에서 18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Graesse, 182 ; Maggioni, 178 ; Häuptli, 177(+ 5개의 그레세판 챕터) ; Jean de Vignay BnF fr. 241, 177 ; Jean de Vignay/Jean Batallier, 177). 그레세판에 추가된 5개의 챕터(48. De sancta Sophia et tribus filiabus ejus ; 52. De sancto Timotheo ; 64. De sancto Fabiano ; 66. De sancta Apollonia ; 71. De. sancto Bonifacio martire)와 마조니판의 롬바르디아 필사본들에만 나타나는 성 시로(87. De sancto Syro)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판본과 필사본에 공통으로 수록된 챕터의 수는 177개이다.

36) R. Hamer et V. Russel, *op. cit.*, p. 146 (saint Nicolas), p. 148 (saint Georges), p. 150 (saint Barthélemy), p. 153 (la fête de tous les saints).

37) 이런 상황은 중세 문헌학 연구에서도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황금성인전』의 구성상 각각의 챕터가 독립된 텍스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헤이머와 러셀은 이에 대해 당시의 서적 주문과 제작 방식에서 설명을 찾고 있다: «The explanation must lie in the manner of operation of the libraires responsible for meeting the considerable demand for this translation. It may be that a libraire in such a case would have one or more working copies divided into chapters or sections, as in the pecia system. If some of these acquired marginal or interlinear corrections, and if scribes did not always receive parts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드 비네 번역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스테마는 존재하며, 이 스테마는 BnF fr. 241 필사본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준다. 헤이머와 러셀이 4개의 챕터에 대한 대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sup>38)</sup>.



P1 =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fr. 241 (Paris, 1348)

Y = London, British Library, Phillips 199 (loan 36) (Paris, s. XV in)

『황금성인전』 연구에서 ‘P1’이라는 약호로 통칭되는 필사본 BnF fr. 241은 장 드 비네 번역을 담고 있는 32종의 필사본 중 어떤 것보다도 직접적인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Y의 경우, 15세기 초 필사본으로 추정되며 장 드 비네 번역문이 일정 부분 제3자에 의해 개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보다 많은 챕터들에 대한 대조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헤이머와 러셀은 다른 필사본들에 비해 Y가 라틴어 텍스트를 보다 정확하게 따르는 사례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장 드 비네의 명백한 오류들이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에서 라틴어 원문과의 대조를 통한 교정의 결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sup>39)</sup>.

위에서 살펴본 템보우스키, 코크란, 그리고 헤이머와 러셀의 연구 외에 장-피에르 보르디에(Jean-Pierre Bordier)의 한 논문<sup>40)</sup>에 성녀 펠라지(sainte

the same working copy, many of the inconsistencies would be accounted for.» (R. Hamer et V. Russel, *op. cit.*, p. 156)

38) R. Hamer et V. Russel, *op. cit.*, p. 154.

39) *Ibid.*

Pélagie) 챕터의 장 드 비네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나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참고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대중적 성격의 비학술서 가운데에는 16세기 인쇄본을 토대로 몇몇 챕터들이 반쯤 현대화된 형태로 출간된 적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장 드 비네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것들이다.

*Les plus belles fleurs de la Legende dorée de Jacques de Voragine  
evesque de Gennes ornée de figures du temps*, éd. Hugues Vaganay,  
Paris, Sirène, 1920

[saint Anthoine, saint Sebastien, sainte Agnes, saint Julien, sainte Agathe, saint Benoist, Legende de Pilate, sainte Marie egyptienne, saint George, saint Alexien, sainte Marguerite, sainte Cristine, saint Christofle, sainte Marthe, sainte Justine, saint François, sainte Thais, sainte Cecile, sainte Katherine, saint Nicolas, saint Silvestre - 21명]

Michel Menot, *Sermon sur la Madeleine*, Paris, H. fournier Jeune, 1832.

[Appendice - Extrait de la Légende dorée et vie des saints et saintes; translattée de latin en français par J. de Vignay. (Paris, 1554, in-fol.), pp. 65-81]

장 드 비네 번역 계열의 텍스트 중 유일하게 비판정본이 출간된 것은 1476년 리용 인쇄본이다.

Jacques de Voragine, *La Légende dorée*. Édition critique, dans la révision de 1476 par Jean Batallier, d'après la traduction de Jean de Vignay (1333-1348) de la *Legenda aurea* (c. 1261-1266) publiée par Brenda Dunn-Lardeau, Paris, Honoré Champion, 1997.

1998년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에밀 파게상(prix Émile Faguet) 수상작이기도

---

40) J.-P. Bordier, « La vie de sainte Pélagie en ancien et en moyen français », *Pélagie la pénitente. Métamorphoses d'une légende. Tome II: La survie dans les littératures européennes*, éd. Pierre Petitmengin, Paris, Études augustiniennes, 1984, pp. 175-218 (p. 195 et pp. 203-205).

한 이 던-라르도 판본은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으로 파리 대학 신학 교수였던 장 바탈리에(Jean Batallier)가 수정한 장 드 비네 번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 바탈리에의 수정본은 1476년 리용 인쇄본 이후 1557년까지 40종이 넘는 인쇄본의 모델이 되었다. 장 드 비네의 번역이 바탈리에를 통해 유일한 『황금성인전』 중세 프랑스어 버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바탈리에에는 1476년 인쇄본 판권장(colophon)에 “라틴어 텍스트에 따라 문자의 진짜 의미를 살리도록 수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Cy finist la Legende doree, dicte la vie des saints en françois, veue et diligemment corrigee auprès du latin et segond le vray sens de la lectre. Comme il pourra apparestre par ceulx qui diligemment mectront la peine a la lire et bien entendre. Par notable et reverend docteur maistre Jehan Batallier, docteur en la saincte theologie a Paris, religieux de l'ordre des Prescheurs de la ville de Lyon sur le Rosne. Et imprimee en la dicte ville de Lyon par Barthelemy Buyer, citoyen du dit Lyon, le dix et huitiesme jour d'avril, mil quatre cens septante et six. (B. Dunn-Lardeau (éd.), *La légende dorée*, p. 1194)

바탈리에에는 장 드 비네 번역의 근본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번역을 당대어로 새롭게 하고, 재라틴어화하려고 노력한다. 장 드 비네가 번역 서문에서 밝힌 대로 “라틴어를 모르는 독자”(gens qui ne sont pas lectrés)를 대상으로 번역했다면, 장 바탈리에에는 어느 정도 라틴어 지식을 갖춘 독자들을 염두에 둔 ‘베리타스 라티나’(Veritas Latina)를 추구한 개정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 바탈리에의 편집 방침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 있어 체계적인 개정은 아니었다. “열심히 수정했다”(diligemment corrigee)고는 하나 ‘열심히’의 정도는 상대적이었다. 수정의 정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장 드 비네의 누락이나 첨가 등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sup>41)</sup>.

바탈리에 수정본의 편자 던-라르도의 정본화 원칙은 베르나르 세르킬리니

41) B. Dunn-Lardeau, « Question d'édition critique d'une traduction et éléments de pré-humanisme d'après les variantes de *Légende dorée* », *Le Moyen français* 32, 1993, pp. 86-87.

(Bernard Cerquigliani)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sup>42)</sup>. 1476년 리용 인쇄본 X의 텍스트와 함께 페이지 하단에 주석 형식으로 P1(BnF fr. 241)의 이형태들 variantes을 같이 제시한다. 즉 X뿐만 아니라 P1의 모습을 복원해 가며 함께 읽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던-라르도판에 의한 P1 독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각주의 이형태들을 따라 P1의 텍스트를 복원해 읽는 것이 지나치게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P1의 모든 이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P1 필사본을 잘못 읽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황금성인전』의 라틴어 원전과 15세기 후반 이후 프랑스어판의 유일한 버전인 바탈리에 수정본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P1, 즉 BnF fr. 241의 정분화는 『황금성인전』 중세 번역사 및 수용 연구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 3. BnF fr. 241 필사본

#### 3.1 필사본의 외적 분석

『황금성인전』 연구에서 ‘P1’이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진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fr. 241 필사본은 제작 시기와 장소가 명확히 밝혀진 문헌이다. 필사본 앞뒤 표지 안쪽에 각각 다음과 같이 1348년 파리의 서적상 리샤르 드 몽바스통(Richart de Monbaston)에 의해 제작되었음이 명기되어 있다<sup>43)</sup>.

##### 앞표지 안쪽(2° de couverture)

Richart de monbaston libraire a fait escrire ceste legende des sains en françois l’an de grace nostre seigneur .mil.cc̄.xlviii.

##### 뒷표지 안쪽(3° de couverture)

42) B. Cerquigliani, *Éloge de la variante*, Paris, Seuil, 1989.

43) BnF fr. 241 관련 연구에서 흔히 보게 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이 서적상의 이름을 Montbaston이라고 적는 것이다. 필사본상에는 앞뒤 표지 안쪽 모두에 Monbaston이라고 적혀 있다.

Richart de monbaston libraire demourant a paris en la rue neuve nostre  
dame fist escrire ceste legende en françois l'an de grace nostre nostre  
[sic] seigneur .mil.cc̄°.xlviij. ~ ~

또한 앞표지 안쪽에는 위에 인용한 “Richart de monbaston libraire [...] .mil.cc̄°.xlviij.” 바로 아래로 “bloys”, 또 한 줄 아래에 “des histoires et livres en françoys [...] de la [cheminee?]”라는 글귀가 16세기 휴머니스트 서체<sup>44)</sup>로 쓰여 있으나 잉크가 워낙 흐려져 읽기가 쉽지 않다. 게리넬-로(M. Guerinél-Rau)는 ‘bloys’를 근거로 이 필사본이 블루아 도서관(Bibliothèque de Blois)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하지만<sup>45)</sup> 이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nF fr. 241은 장 드 비네의 『황금성인전』 중세 프랑스어 번역 전문을 수록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다. 채식화와 장식문자가 곁들여진 425×295 mm 사이즈의 대형 양피지 필사본으로, 페이지당 45줄의 텍스트가 2단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144개의 채식화는 일반적으로 각 장의 시작 부분에 배치된다. 성인 소재 챕터의 경우 단 너비에 맞춰 그림이 삽입되며, 예수나 성모의 일생과 관련된 챕터들에서는 대개 두 개의 단에 걸쳐 큰 사이즈로 채식화가 들어간다. 344장 folios 분량의 텍스트 중 『황금성인전』(fol. 1-343r)은 한 명의 필사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L'Epistre saint Beneoit a Remon arcevesque de Coulongne du martire des Machabees*(fol. 343v-344v)라는 제목의 텍스트가 다른 필사자에 의해 추가되었다.

번역자 장 드 비네 서문(fol. 1ra)과 저자 야코부스 데 보라기네 서문(fol. 1rb) 이후 목차에 해당하는 성인 목록 *Table des saints*(fol. 1vb-3rb)이 나온다. 각 챕터마다 로마숫자로 번호가 매겨져 있으나 중간에 순서의 오류와 챕터 제

44) 중세 후반 이탈리아에서 개발되어 르네상스 시기에 주로 사용된 필기서체로 중세 고딕체(écriture gothique) 이전의 서체를 모델로 삼아 개발된 보다 현대적인 모습의 필기체를 가리킨다. 중세 필사본의 상징인 고딕체를 버리고 고대의 순수함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르네상스 정신과 연결되며, 명칭도 ‘휴머니스트 서체’(écriture humaniste)로 굳어졌다.

45) M. Guerinél-Rau, *La Légende Dorée conservée à la Bibliothèque Municipale de Rennes*, 2007, p. 72.

목의 누락이 발생해 정확한 번호는 아니다. 필사자는 본문 페이지 상단(주로 중앙)에 이 챕터 번호를 표시해 놓았다. 책장 번호(foliotation)는 현대에 추가된 것이다.

성인 목록은 필사본 안의 실제 챕터 구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복음사가 요한, 성 프란체스코 챕터가 누락된<sup>46)</sup> 것은 단순한 필사 오류로 보이며, 성 펠라기아 챕터의 누락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 마가리타 펠라기아와 동일한 인물로 착각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문 내에서는 달리 성 아에기디우스(성 질)가 성 마메르티누스 다음이 아닌 성 펠릭스와 아다욱투스 다음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폴리오 2va의 성 티부르티우스(saint Tyburcien)는 fr. 241 필사본은 물론 야코부스 원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성인이며, 기욤 르 루아(Guillaume Le Roy)에 의해 1485년 리용에서 출판된 인쇄본의 ‘새로운 성인 목록’(Les festes nouvelles)에 등장하는 성인이다<sup>47)</sup>. BnF fr. 241 필사본의 성인 목록이 본문과는 별개로 다른 전통의 필사본 것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장 드 비네의 번역이 잔 드 부르고뉴(Jeanne de Bourgogne)의 주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의견이며, BnF fr. 241이 잔 드 부르고뉴에게 헌정된 오리지널 버전이라는 의견도 개진되지만<sup>48)</sup>, 이 필사본이 장 드 비네 번역의 원본이라는 증거는 필사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헤이머도 fr. 241이 텍스트적으로는 가장 우수하지만 장 드 비네 번역 원본은 아니며, 따라서 장 드 비네 번역의 완성 시점은 명확히 알 수 없고 현재 보존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인 fr. 241의 작성 연도 1348년 이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sup>49)</sup>.

46) 각각 책장 오른쪽 여백에 원래 필사자와는 다른 사람의 글씨로 다음과 같이 누락된 제목을 기입해 놓았다: De s' Jeh' leügliste [De saint Jehan l'euvangeliste] (f° 2rb) ; De s' francois q̄rez loy aḡs s' ligier [De saint François. Querez loy après saint Ligier] (f° 2vb)

47) P. Burtler, *Legenda Aurea - Légende Dorée - Golden Legend*, Baltimore, John Murphy, 1899, pp. 39-40: 기욤 르 루아의 1485년 인쇄본에 새로 추가된 성인 목록에는 두 명의 성 티부르티우스(f°s 297r et 310v)가 등장함.

48) 홍용진, 「14세기 전반기 프랑스 왕권의 종교 텍스트 번역 - 필리프 6세 시기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35, 2015, pp. 111, 116.

여기에 더해 장 드 비네의 『황금성인전』 번역이 잔 드 부르코뉴의 주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실제로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sup>50</sup>. 잔 드 부르코뉴가 장 드 비네에게 『황금성인전』 번역을 의뢰했다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장 드 비네 번역 서문에 의거한 것이다.

Pour laquel chose quant je oi parfait *Le mireour des hystoires du monde* et translatai de latin en françois a la requeste de treshaute, poissant et noble dame Ma Dame Jehanne de Borgoigne, roine de France par la grace de Dieu, je fui tout esbahi a quel oevre faire je me metroie après si tres haute et longue oevre, comme je avoie faite par devant. [...] Et pour ce que il m'est avis que ce est souverain bien que de faire entendre as gens qui ne sont pas lectrés les nativitez, les vies, les passions et les mors des sains et aucuns autres fais notoires des temps passez me sui je mis a translater en françois la legende des sains, qui est dite *Légende doree*. (장 드 비네 번역서문, BnF fr. 241, fol. 1r)

그런데 위에 인용한 장 드 비네의 번역서문의 해당 대목을 잘 읽어보면 잔 드 부르코뉴의 요청으로 번역한 것은 『역사보감 *Le mireour des hystoires du monde*』이지 『황금성인전』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엄청난 분량의 대작 『역사보감』을 잔 드 부르코뉴의 요청으로 번역한 후,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던 중 『황금성인전』을 번역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서문의 내용이다. 장 드 비네 번역의 15세기 필사본들 중 일부가 이 대목을 잘못 옮겨 적은 것도 잔 드 부르코뉴가 『황금성인전』 번역을 직접 주문했다고 확신하게 만든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sup>51</sup>. 초기 필사본들의 번역서문은

49) R. Hamer, « From Vignay's *Légende dorée* to the Earliest Printed Editions », *Le Moyen français* 32, 1993, p. 71.

50) M. Guerinél-Rau, *op. cit.*, p. 73 ; R. Hamer, *op. cit.*, p. 71 note 2.

51) 예를 들어 폴랭 파리스는 왕립도서관 68882(= BnF fr. 242) 필사본의 다음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 Cy commence le prologue de frere Jehan du Vignay, de l'ordre de Saint Jaques de Hault pas, sur la legende dorée ; laquelle il translata de latin en françois, à l'instance et requeste de très haulte et noble et puissante dame ma dame de Bourgoigne, par la grace de Dieu royne de France » (P. Paris, *Les manuscrits français de la Bibliothèque du roi II*, Paris, Techner, 1838, p. 255)

fr. 241을 따른다<sup>52)</sup>).

### 3.2 필사본의 텍스트 분석

2.2에서 살펴본 템보우스키, 코크란, 헤이머·러셀의 판본과 관련해서도 보았듯이 P1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장 드 비네역 『황금성인전』 필사본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텍스트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필사본으로 공인받고 있다<sup>53)</sup>. 다시 말해 정본화 작업의 저본으로 삼을 최상의 조건을 갖춘 필사본이 P1인 것이다<sup>54)</sup>. 그렇다고 P1이 전혀 오류가 없는 완전무결한 문헌이 아님은 당연하다. 장 드 비네 번역문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필사 작업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비롯된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P1에서 발견되는 추가 및 오류와 특히 누락 부분을 중심으로, 주로는 마조니 판본과 필사본 연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입틀리 판본과 대조하여 P1 텍스트가 『황금성인전』 라틴어 텍스트 발전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성 니콜라(saint Nicols)를 다루는 제 4장 서문에서의 P1과 X의 차이를 보기로 하자.

**P1:** Et les docteurs de Grece escristrent sa legende. Et l'en lit ailleurs que Methodien patriarche l'escrist en crec, et Jehan dyacre la translata en latin et y ajouta plusieurs choses. (R. Hamer et V. Russel, p. 159)

52) R. Hamer, *op. cit.*, p. 71.

53) « P1, the earliest surviving manuscript, despite some errors and omissions, has a good standard of accuracy, and we have no doubt that it is the right text to use as the base for an edition. » (R. Hamer et V. Russel, *op. cit.*, p. 153)

54) 여러 종류의 필사본이 존재할 경우, 정본화를 위한 저본 확정에는 필사 시기, 텍스트의 품질, 텍스트 전문 수록 여부, 필사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예상외로 많지 않다. 전문이 수록되어 있고, 오류가 적으며 필사 시기도 초기의 것이라면 일단 정본화 작업의 이상적인 저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X: Et les docteurs de Argolice escripent sa legende. Et Argos, selon Isidoire, est une cité de Grece dont les Argoliciens sont appellés Grecs. Et l'en dit ailleurs que Methodien, patriarche, l'escript en grec, et Jehan, diacre, la translacta en latin et y adjousta plusieurs choses. (B. Dunn-Lardeau, pp. 119-120)

헤이머와 러셀은 장 드 비네의 누락 오류를 바탈리에가 라틴어 원문을 참고하여 복원하고 있다고 말한다<sup>55)</sup>. 마조니나 호입틀리는 물론, 그레세판을 보아도 바탈리에가 라틴어 텍스트를 참고해 장 드 비네의 번역을 수정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LA<sub>2</sub>: Eius legendam doctores Argolici conscripserunt; est autem Argos secundum Ysidorum ciuitas Grece unde et Argolici Greci uocantur. Albi quoque legitur quod Methodius patriarcha eam Grece scripsit quam Iohannes diaconus in Latinum transtulit et pura addidit. (G. P. Maggioni, p. 44)

니콜라스의 생애는 아르골릭스라고 불리는 아르고스의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시도루스에 따르면 아르고스는 그리스에 있는 마을로 헬라어로 아르골릭스라고<sup>56)</sup> 한다. 그 외에도 그의 전설은 메토디우스 총대주교에 의해 헬라어로 쓰여졌고, 집사 요한이 거기에 많은 것을 첨가해서 라틴어로 번역했다. (윤기향, p. 49)

그런데 이 대목의 장 드 비네 번역은 누락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다. 장 드 비네는 자신의 번역 저본 라틴어 텍스트에 충실했을 뿐이다. 마조니의 주석에 따르면 라틴어 필사본 V에 “eius ... uocantur”가 누락되어 있다. 즉 LA<sub>1</sub>을 따르는 필사본 V에 근접한 라틴어 필사본이 장 드 비네의 번역 저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미리 말해 두자면 P1은 라틴어 필사본 LA<sub>2</sub> 단

55) « At Nic 9 Vignay replaced *Argolici* by *de Grece* and omitted a following sentence of explanation (see Nic 9); Batallier restores *Argolice* and inserts the missing sentences. » (R. Hamer et V. Russel, *op. cit.* p. 138)

56) “헬라어로 아르골릭스라고 한다”가 아니라 “(아르고스가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므로) 아르고스 사람들(Argoliciens)은 그리스인이라고 불린다”라고 옮겨야 정확한 번역이 된다.

계의 Re와 LA<sub>1</sub> 단계의 V, E를 따르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며, V와 E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형태나 누락이 P1에 주로 나타나지만, 상기 예문에서 보듯이 V의 특이점만을 따르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제 1장 ‘주님의 강림’(De Aduentu Domini)에는 P1이 V와 E 필사본을 따르는 부분이 발견된다.

**LA<sub>2</sub>:** Hinc est etiam quod primum responsorium prime dominice aduentus, computato Gloria patri, quatuor uersus continet ut predictos quatuor aduentus designet. Quis autem aut cui magis conueniat, prudens lector attendat. Licet autem sit quadruplex aduentus, tamen ecclesia specialiter de duplici, scilicet in carnem et ad iudicium, uidetur memoriam facere, sicut in officio ipsius temporis patet. (G. P. Maggioni, p. 14)

대림절 첫 주일을 위한 첫 번째 화답송은 글로리아 파트리를 포함해서, 앞서 말한 네 번의 강림과 상응하는 네 구절로 되어있는데, 마음을 쏟아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각 절들이 각각의 주님의 오신 의미와 훌륭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윤기향, p. 23)

**P1:** Et pour ce, le premier respons du premier diemenche de l’Avent a conter le *Gloria Patri* contient ·iiij· verses afin de senefier les devans dis ·iiij· avenemens. Et ja soit ce que il soient ·iiij· advenemens, toute fois especialment l’Eglise ne fait memoire fors de ·ij·, c’est assavoir de celi en char et au jugement, si comme il appert en l’office. (fol. 3va)

원문의 “Quis autem ... lector attendat” 문장이 통제로 누락되어 있다<sup>57)</sup>. 여기서도 문장의 누락은 장 드 비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라틴어 필사본 V와 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역에 사용된 라틴어 저본 자체에 이 문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54장 ‘이집트의 성 마리아’에 대한 장 블레와 장 드 비네의 번역을

57) 이 대목은 바탈리에도 누락된 문장을 복구해 넣지 않고 장 드 비네의 번역을 그대로 제시한다. 바탈리에가 라틴어 원문을 참고해 번역을 수정하는 것은 작품의 첫 부분보다는 뒤로 갈수록 체계적으로 변한다.

비교하면서 도입부의 마지막 문장이 두 번역 모두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58)</sup>.

**LA<sub>2</sub>:** Maria Egyptiaca, que peccatrix appellatur, XLVII annis in heremo artissimam uitam duxit, quam circa annos domini CCLXX tempore Claudii intrauit. (G. P. Maggioni, p. 422)

최인이라 불리는 이집트인 마리아는 클라디우스 통치 때인 주후 270년부터 47년간 광야에서 최고의 금욕 생활을 하며 보냈다. (윤기향, p. 368)

**P1:** Marie Egyptienne qui fu appelee pecherresse mena tres destroite vie .xlviij. ans el desert<sup>59)</sup>. (fol. 96vb ; P. Dembowski, p. 270)

당시 필자는 라틴어 저본에 이미 해당 대목이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번역자의 의도적 누락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겼다. 즉 텍스트의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번역자가 판단하여 시공간적으로 동떨어져 당대 독자들이 알기 힘든 항목의 번역을 생략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의 경우에도 “quam ... intrauit”가 라틴어 필사본 V, E에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부분은 파리 라틴어 필사본 Z에도 마찬가지로 누락되어 있다. Z 역시 LA<sub>2</sub> 단계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텍스트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Z와 V, E의 누락이 일치하는 다른 예는 찾지 못한 상태이다. 대신 P1의 오류가 라틴어 필사본들 가운데 Z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확인된다.

**LA<sub>2</sub>:** Illi autem tres panes quos mecum detuli, instar lapidis per tempora duruerunt et XLVII annis mihi ex hiis comedens suffecerunt; uestimenta autem mea iamdudum putrefacta sunt. XVII annis in hoc deserto a temptationibus carnalibus molestata fui, sed nunc per dei gratiam omnes uici. (G. P. Maggioni, p. 424)

그리고 이곳에서 [...] 47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져왔던 빵 덩어리들은 돌 같이 굳어졌으나, 이 모든 세월 동안의 양식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옷은 세월이 가면서 조각조각 헤어져 버렸고, 17년 동안은 육신의 유혹으

58) 김준환, *op. cit.*, pp. 92-93.

59) X도 수정 없이 장 드 비네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느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윤기향, p. 370)

**P1:** Et ces .iij. pains que je aportai avec moi s'endurcirent par le lonc temps et m'ont souffi par .xvij. ans que j'en ai mengié, mes mes vestemens sont pieça porris. Et j'ai esté en ce desert molt tormentee par .xvij. anz de temptacions de la char, mes par la grace de Dieu, je les ai touz vaincus maintenant. (fol. 97rb ; P. Demowski, p. 271)

‘47년(XLVII annis)’을 P1은 ‘17년(.xvij. ans)’으로 잘못 옮기고 있다. 장 블레의 번역에도 ‘17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P1의 단순한 번역 오류이거나 필사 실수라고 보기는 힘들다. 라틴어 필사본 Z에도 이 대목이 ‘XVII annis’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sup>60)</sup> P1이 Z와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P1은  $LA_1$ 상태의 텍스트를 반영한 V, E 외에도  $LA_2$  단계의 Re와도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109장 성 도미니크전에서 뽑은 3개의 예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LA<sub>2</sub>:** Quidam tamen miles qui ibi aderat et nostre fidei aliquantulum adherebat istud miraculum postmodum publicauit. Factum est autem hoc apud montem Regalem. Simile quoddam dicitur accidisse apud Fanum Iouis indicta. (G. P. Maggioni, p. 806)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에 마음이 끌린 한 군인이 있었다. 후에 그가 그 기적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 일은 몽레알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그와 유사한 일이 그와 비슷한 시간에 이단과 의례적인 논쟁이 벌어지던 팡조스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윤기향, p. 677)

**P1:** et toutefois .i. chevalier, qui la estoit et se prenoit aucun poi a nostre foi, fist après ce assavoir ce miracle. Et l'en dit que semblable chose avint a Mont Victorieu el temple de Jovis<sup>61)</sup>, que une disputoison fu

60) B. Häuptli, *op. cit.*, p. 774, note pour la ligne 28.

61) Fanum Jovis의 원 뜻은 « le temple de Jupiter » 즉 ‘주피터의 사원’이며, 지명 팡조

ordenee contre les hereges. (fol. 189rb ; D. J. Cochrane, p. 252)

Regalem과 Victorialem의 교차는 Re, V, E 외에도 여러 필사본들이 대립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파리와 뮌헨 필사본 Z, H를 포함해 C, M, Re의 텍스트에 Victorialem이 나타난다. 반면 A와 Q에는 Regalem으로 되어 있다. Montem Regalem 대신 잘못된 지명인<sup>62)</sup> montem Victorialem이 여러 필사본에 등장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LA<sub>2</sub> 단계 내에서 일어난 텍스트상의 혼란이다. V와 E에는 이 부분(마조니판 기준 22번~37번 문장)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즉 P1은 LA<sub>1</sub> 텍스트인 V와 E 외에 Re를 포함한 LA<sub>2</sub> 텍스트도 따라간다는 말이 된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면 P1이 따르는 LA<sub>2</sub> 텍스트가 Re 필사본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문장에 뒤이어 P1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P1:** Si comme la maladie de mauvestié de heresie croissoit es parties d'Albigois, cele disputaison sollempnel fu a ce temple de Jovis, et furent ordenez juges d'une partie et d'autre ausquies l'en devoit baillier en escript l'affirmacion de la foi que chascun enseignoit. Si que le livret de saint Dominique fu esleu et presenté entre ces autres. Et donc les juges contenoient entr'eulz. Et toute fois fu il ordené que les livres d'une part et d'autre seroient getés el feu, et que celi qui ne porroit ardoir sans doute contenroit la vraie foi. Et donc furent les livres getez en .i. grant feu ardent. Et tantost li livre des hereges fu ars. Et le livre de saint Dominique tant seulement ne fu pas ars, mes sailli hors du feu bien loing sanz lesion. Et donc fu encore secondement geté el feu. Et il s'en sailli aussi sans ardoir. (fol. 189rb ; D. J. Cochrane, p. 252)

Fanjeaux의 어원이다. 장 드 비네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장 바탈리에 모두 '팡조'라는 지명을 알지 못해 어원적 의미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몽빅토리알과 팡조 두 지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몽빅토리알에 있는 주피터 사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 된다.

62) « Montréal (Departement Aude; viele Handschriften schreiben irrümlich *mons Victoralis*) liegt in Aquitanien, 20 km westlich von Carcassonne. » (B. Häuptli, *op. cit.*, p. 1402, note 14)

이단이라는 악의 질병이 알비 지역에 창궐했을 때 이 유명한 논쟁이 주피터 사원(팡조)에서 열렸고, 양측은 각자 자신들이 가르치는 신앙을 확인하는 글을 적은 책자를 판관들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성 도미니크의 책자가 다른 가톨릭 책자들 가운데 선택되어 제출되었다. 판관들은 토론 끝에 양측에서 제출한 책자들을 불에 던지도록 명하였고, 불에 타지 않는 책자가 틀림없이 진정한 신앙을 담고 있으리라고 선언했다. 책들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단자들의 책은 곧 타버렸다. 성 도미니크의 책은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파손되지 않고 불 밖으로 멀리 튀어나왔다. 두 번째로 다시 불에 던져졌지만 역시 불에 타지 않고 튀어나왔다.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가 필사본 Re에서 같은 대목에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e:** Cumque in partibus Albigensium morbum heretice paruitatis increaseret et apud Fanum Iouis celebris disputatio indicta esset ut sub iudicibus deputatis ab utraque parte scripta presentari debeat assertio fidei quam docebat, libellus sancti Dominici pre ceteris libellis catholicorum eligitur et in medium presentatur; uerum a iudicibus inter se discrepantibus statutum est ut utrosque libellos in ignem proicerent et quem comburi non contingeret, ille ueram fidem procul dubio contineret. In magnum ignem accensum libellis proiectis, hereticorum liber statim comburitur, libellus autem sancti Dominici non solum non leditur, uerum etiam ab igne prosilit in longinquum. Secundoque iniectus ac tertio eque prodiit incombustus. (G. P. Maggioni, p. 806, note pour la phrase 38)

그런데 같은 텍스트를 라틴어 필사본 V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부 표현들에서 단어 순서가 살짝 바뀌거나 어휘의 첨가, 생략이 있기는 하지만 이 대목의 Re와 V는 동일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sup>63</sup>).  $LA_1$  단계에 속하는 V와  $LA_2$

63) V: Cumque in partibus Albigensium morbum heretice paruitatis increaseret et apud fanum Iouis celebris disputatio indicta esset ut sub iudicibus deputatis ab utraque parte scripta presentari debebat assertio fidei quam docebat, libellus sancti Domini pre ceteris catholicorum libellis eligitur et in medium presentatur; uerum iudicibus inter se discrepantibus statutum est ut utrosque libellos in ignem proicerent et quem non

단계에 속하는 Re가 다른 필사본들과 대립하여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목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Re가 *LA*<sub>1</sub> 단계의 텍스트를 일부 유지하는, 즉 *LA*<sub>2</sub> 단계의 텍스트 중에서는 비교적 초기의 버전에 속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성 도미니크 챗터에는 P1이 Re를 따른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된다. 바로 위에서 인용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라틴어 텍스트 Re에 한 문단이 추가된 경우인데, 이번에는 P1의 번역 방식이 달라진다.

**P1:** Saint Dominique, avant l'institution de son Ordre, vit Jhesucrist qui tenoit .iij. dars en sa main et menaçoit le monde et cetera. Car je, frere Jehan du Vingnay, translateur de cest livre, ne veul ci plus metre ceste vision, car elle est pardevant en ce meismes chapitre et dit que ceste vision meismes fu faite a .i. moine et de rechief a .i. autre, pour quoi je ne la veul pas .iij.-fois metre ici. (fol. 195rb ; D. J. Cochrane, p. 267)

성 도미니크는 자신의 수도회를 설립하기 전에 창 3자루를 손에 들고 세상을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등등. 이 책의 번역자인 나, 장 드 비네는 여기에서 또 이 꿈 이야기를 옮기지 않겠다. 이 장의 앞부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로 한 수도승에 의해 이야기되었고, 다른 수도승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 내용이므로 여기서 또 세 번째로 옮기고 싶지는 않다.

번역자 장 드 비네는 이 이야기가 앞에서 이미 두 번씩이나 소개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번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적고 있다<sup>64</sup>). 번역자이면서 동시에 비판정보 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

*combur* contingeret, ille ueram fidem procul dubio *obtinere*t. In magnum *igitur* ignem accensum libellis proiectis, hereticorum liber statim comburitur, libellus sancti Dominici non solum non leditur, uerum ab igne *prosilii*t foras in longinquum. Secundoque iniectus ac tertio eque prodiit incombustus. (Maggioni (éd.), *Legenda aurea*, p. 806, note pour les phrases 22-37. 밑줄 친 부분은 Re와 차이가 나는 지점임)

64) 성 도미니크 챗터에 추가된 이 대목의 내용과 완전히 중복되는 부분은 한 곳뿐이다. 장 드 비네가 이미 두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한 에피소드 중 첫 번째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다.

챕터 마지막에 추가된 해당 대목은 이미 앞부분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이다. Re 필사본에 추가된 부분과 이미 앞에 나온 에피소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Re:** Beatus Dominicus ante ordinis constitutionem uidit Christum iratum in uisione tria iacula habentem in manu minantem mundo quod erant omnes Iudei uel falsi christiani. Cui affuit beata uirgo pro mundo rogans et dicens: «Parce, fili, mundo! Ecce, habeo seruum meum ualde te et me diligentem: ipsum mittam predicatorem ueritatis. Ad quem multis conuertentur et uiam ueritatis consequeretur». Et sic uisum est ei quod ibidem presentaretur. Cui acquiescenti et dicenti quod non bene sufficeret, representauit sibi beatum Franciscum dicens: «Ecce, hic associabitur ei». Qui annuit precibus matris. Beatus uero Dominicus optime uocauit personam beati Francisci et formam et uultum. Vnde cum procedente tempore Romam uenisset propter ordinis confirmationem inuenit beatum Franciscum Rome, quem intuens cognouit eum cum nunquam uidisset eum. Cui dixit pater Dominicus: «Debet esse meus socius sic: enim et sic uidi». Et narrauit ei uisionem per ordinem. Hec beatus Franciscus dixit cuidam fratri suo qui hec postea predicauit in domo fratrum predicatorum apud Ascolito. (G. P. Maggioni, pp. 828-829, note pour la phrase 384)

**LA<sub>2</sub>:** [...] cum beatus Dominicus Rome pro confirmatione sui ordinis apud papam instaret, nocte orans uidit in spiritu Christum in aere existentem et tres lanceas in manu tenentem et contra mundum eas uibrantem. Cui uelociter mater occurrens quidnam uellet facere inquisiuit. Et ille: «Ecce, totus mundus tribus uitiiis plenus est, scilicet superbia, concupiscentia et auaritia, et ideo hiis tribus lanceis ipsum uolo perimere.» Tunc uirgo ad eius genua procidens ait: «Fili carissime, miserere et tuam iustitiam misericordia temperato». Cui Christus: «Nonne uides quante mihi iniurie irrogantur?». Cui illa: «Tempera, fili, furorem et paulisper expecta. Habeo enim fidelem seruum et pugilem strenuum qui ubique discurrens mundum expugnabit et tuo dominio subiugabit. Alium quoque seruum sibi in adiutorium dabo qui secum similiter decertabit». Cui filius: «Ecce, placatus faciem tuam suscepi, sed uellem ego uidere quos uis ad tantum officium destinare». Tunc illa Christo sanctum Dominicum presentauit. Cui Christus: «Vere bonus et strenuus pugil iste et sudiose faciet que

dixisti». Obtulit etiam sanctum Franciscum et hunc Christus sicut et primum pariter commendavit. Sanctus ergo Dominicus socium suum in uisione sua diligenter considerans quem ante non uiderat, in crastino in ecclesia inuentum ex hiis que nocte uiderat sine indice recognouit et in eius amplexus et oscula sancta ruens ait: «Tu es socius meus, tu pariter curres mecum, stemus simul et nullus aduersarius preualebit». Visionem quoque predictam sibi per ordinem enarrauit et ex tunc factum est eis cor unum et anima una din domino. Quod et in posteros mandauerunt perpetuo obseruari. (G. P. Maggioni, p. 810)

도미니쿠스가 로마에서 교황으로부터 그의 수도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그 수사가 어느 날 밤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향해 창 세 개를 휘두르고 계셨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달려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물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온 세상이 세 가지 악, 교만과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창으로 세상을 멸망시켜야겠습니다.” 동정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사랑하는 아드님이여, 공흠을 베푸소서. 자비로 공의를 누그러뜨리소서!” 그리스도가 대답했다. “그들이 제게 가하는 악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리아가 대답했다. “아들이시여, 진노를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소서. 제게 충성되고 용맹스런 전사가 한 사람 있나이다. 그가 세상 곳곳으로 나가, 세상을 정복하고, 당신의 다스리심에 그들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도와줄 다른 중 하나를 그에게 붙여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싸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진노가 가라앉았으니 어머님 호소에 따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사명을 맡기려는 사람을 기꺼이 만나보겠습니다.” 이에 그녀는 그리스도에게 성 도미니쿠스를 소개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선하고, 강한 전투자로서, 당신이 말한 것은 모두 열심을 다하여 행할 것입니다.” 다음에 그녀는 성 프란체스코를 주님에게 데리고 왔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프란체스코를 최고의 사람으로 격찬하였다.

성 도미니쿠스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이 맹우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다음 날 도미니쿠스는 교회에서 그를 발견하고 그럴 전날 밤에 보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 가서 포옹하고, 애정어린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그대는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힘껏 뛰어다니게 될 것이요. 우리 함께 서서 어떤 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앞에서 말했던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프란체스코에게 말해주었다. 그때 이래 그 둘은 주님 안에서 한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며, 그들은 한 규율을 만들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늘 일치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 (윤기향, pp. 680-681)

Re에 추가된 텍스트와 이미 앞에 나온 대목은 구성과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가 3개의 창으로 부패한 세상을 멸하려는 것을 성모가 만류하며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를 예수에게 소개한다는 동일한 에피소드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예문과는 달리 Re에 추가된 텍스트가 V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 부분은  $LA_2$  단계에서 추가된 텍스트라는 말이 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장 드 비네의 프랑스어 번역 P1은 라틴어 원본의 초기 단계( $LA_1$ ) V(E)와 후기 단계( $LA_2$ ) Re 필사본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V, E의 누락이나 이형태가 P1에 재현된 사례를 소개하기는 했지만, 마조니 판본의 주석에 표시된 V, E의 누락 대부분은 P1에서도  $LA_2$  단계의 텍스트에 맞춰 보충되어 있다. 즉 P1은 라틴어 원본 초기 단계의 모습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LA_2$  단계에 속하는 저본을 바탕으로 번역된 텍스트인 것이다. 반면 Re는 V와 E의 텍스트 성격을 일부 공유하는,  $LA_2$  단계에서는 비교적 초기의 텍스트를 담고 있는 필사본이다. 누락과 이형태 비교의 결과로는 적어도 1281년 파리 필사본 Z보다는 앞선 시기의 텍스트이다.

『황금성인전』 초기 버전의 작성 연대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늦어도 1267년에는  $LA_1$ 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P1의 저본으로 사용된 라틴어 텍스트는 1267년에서 1281년(Z의 작성 시점) 사이에 생산된 버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마조니의 필사본 연구는 P1 번역 저본 텍스트의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순교자 페트루스(마조니판 61장) 챕터에서 제공한다.

순교자 페트루스(saint Pierre Martyr)는 『황금성인전』에 등장하는 가장 ‘젊은’ 성인이다. 야코부스 데 보라기네와 동시대의 인물로, 야코부스와 마찬가지로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이었다. 1252년 4월 6일 성 페트루스가 이단심판관 직을 수행하던 중 살해된 사건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교황 인노첸시오 4

세의 명으로 즉시 시성 절차에 들어가 이듬해인 1253년 3월 9일에 순교자 자격으로 시성되었다(시성칙서 1253년 3월 24일). 공식적으로 순교자로 인정받았고, 페트루스 역시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이었으므로 야코부스의 성인전 모음집에 수록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순교자 페트루스 챗터의 텍스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다. 『황금성인전』의 성 페트루스 챗터는 토마조 다 렌티노(Tommaso da Lentino)가 1274년 이후에 작성한 성 페트루스 전기의 축약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야코부스가 『황금성인전』을 완성한 시점을 종래에는 1263~1267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선후 관계에 모순이 생긴다. 기존의 가설은 야코부스가 『황금성인전』을 위해 먼저 짧은 성인전을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토마조 다 렌티노가 증보판을 만들었다거나, 토마조가 야코부스에 앞서 작성한 짧은 성인전이 『황금성인전』에 수록된 후 다시 증보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sup>65)</sup>. 마조니의 필사본 조사를 통해 V가 발굴되었고, V에는 순교자 페트루스를 다루는 챗터에 그의 전기가 아닌 인노첸시오 4세의 시성칙서가 담겨 있다. 도미니크 수도회의 요청으로 1474년 이후 토마조 다 렌티노가 순교자 페트루스의 전기를 완성하고, 이 텍스트가 1475년부터 모든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수도원들에 의무적으로 비치되면서 야코부스는 이 텍스트를 요약하여 『황금성인전』 61장에 신게 된 것이다<sup>66)</sup>. 1272~1276년 사이에 작성된 라틴어 필사본 A에 성 페트루스전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LA<sub>2</sub> 단계의 텍스트에 성 페트루스전이 삽입된 것은 1275~1276년 시점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P1의 저본으로 사용된 라틴어 버전은 1275~128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시기를 좁힐 수 있다. Re가 1281년에 작성된 필사본 Z보다 이전 단계의 텍스트라는 점, 그리고 P1의 저본에는 Re 텍스트보

65) A. Boureau, *op. cit.*, p. 1217.

66) 알랭 부로에 따르면 야코부스에게 있어 성인의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적 인(*institutionnel*) 사실이었다. 교회에 의해 공인된, 즉 시성되어 성인품에 오른 인물들이 『황금성인전』의 기술 대상이었으며, 성인 자체뿐만이 아니라 성인전 텍스트 또한 시성된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했다. 야코부스가 『황금성인전』 내의 성인전들을 스스로 쓰지 않고 권위를 인정받은 텍스트들을 축약하여 인용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는 것도 결국 이런 이유에서이다. 순교자 페트루스의 경우도 도미니크 수도회의 공식적인 전기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면서 교황의 권위에서 나온 시성칙서를 먼저 기록해 둔 것이다. (A. Boureau, *op. cit.*, p. XVII)

다 앞선 시기의 텍스트인 V와 E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P1의 라틴어 저본 텍스트 작성 시점이 1270년대 후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더 범위를 좁혀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4. 맺는 말

지금까지 야코부스 데 보라기네에 의한 『황금성인전』의 라틴어 및 중세 프랑스어 필사본과 판본들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장 드 비네역 파리 필사본 P1(BnF fr. 241)과 라틴어 필사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라틴어 원본과 중세 프랑스어 번역의 정분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15세기 인쇄본(1472, éd. Ebert) 단 하나에 근거해 19세기 중반에 출간된 그레세판에 의존하던 『황금성인전』 연구는 조반니 파올로 마조니의 롬바르디아 필사본 기반 판본(1998, 2<sup>e</sup> éd. 2007)과 파리 및 뮌헨 필사본을 바탕으로 한 브루노 호입틀리 판본(2014)의 간행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중세 라틴어 문헌의 세속어 번역 연구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출발어 텍스트 비판정보 부재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 것이다. 특히 마조니 판본은 야코부스가 생존했던 당시 그의 활동 지역이었던 롬바르디아 필사본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발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황금성인전』의 작성이 두 개의 단계, 즉 초기 버전  $LA_1$ 과 후기 버전  $LA_2$ 로 구별된다는 점을 증명하고, 야코부스 텍스트의 최종 단계를 복구함은 물론  $LA_1$ 의 모습 또한 최종 버전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같이 작품의 발전 과정상 대별되는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순교자 성 페트루스 챗터와 토마조 다 렌티노에 의한 성 페트루스전 사이의 선후관계 등과 같은 텍스트 내외의 모순된 문제들이 해결되기에 이른다.

『황금성인전』 라틴어 원본의 작성 단계 구분과 각 단계별 주요 필사본들의 구성 및 텍스트적 차이점이 기술되면서, 장 드 비네에 의한 중세 프랑스어 번역을 수록하고 있는 BnF fr. 241 필사본과 라틴어 원전과의 관계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본고 3.2에서 보았듯이 마조니 판본과 호입틀리 판본의 이

형태들을 fr. 241 필사본과 대조한 결과, 장 드 비네의 중세 프랑스어 번역은 라틴어판 『황금성인전』 필사본 Re, V, E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장 드 비네의 번역은 라틴어 원전의 초기 버전( $LA_1$ ) V와 E의 요소들을 상당 부분 보존하면서도, 후기 버전( $LA_2$ ) 중 초기 텍스트에 속하는 Re를 동시에 따르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성 페트루스 챗터의 작성 시점 및 밀라노 필사본 A(Bibl. Ambrosiana C 240 inf.)와 파리 라틴어 필사본 Z(BnF Nouv. acq. Lat. 1800)의 작성 시기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장 드 비네의 중세 프랑스어 번역 저본으로 사용된 『황금성인전』 라틴어 버전이 1275~1281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필사본

BnF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fr. 241 : <http://gallica.bnf.fr/ark:/12148/btv1b84260044/f2.item.r=241>

#### - 라틴어 판본

Iacopo da Varazze, *Legenda Aurea. Con le miniature del codice Ambrosiano C 240 inf.* Testo critico riveduto e commento a cura di Giovanni Paolo Maggioni. Traduzione italiana coordinata da Francesco Stella con la revisione di Giovanni Paolo Maggioni, 2 vol., Tavarnuzze (Firenze): Sismel/Il Galluzzo, 2007 (1<sup>re</sup> éd., *Legenda aurea. Edizione critica* a cura di Giovanni Paolo Maggioni, Florence, 1998 ; rééd. corrigée en 1999).

*Jacobi a Voragine Legenda aurea vulgo Historia Lombardica dicta*, Dresde: Lipsiae, 1846 (2<sup>e</sup> éd., 1850 ; 3<sup>e</sup> éd., 1890).

Jacobus de Voragine, *Legenda aurea - Goldene Legende*. Eileitung, Edition, Übersetzung und Kommentar von Bruno W. Häuptli, 2 Bde., Freiburg/Basel/Wien: Herder, 2014.

#### - 중세프랑스어 번역

Cochrane, D. J. (2013) *The Lives of Saint Dominic in Medieval French and their Relation to the Latin Sources*. Thèse,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Dembowski, P. F. (1977) *La Vie de sainte Marie l'Egyptienne : versions en ancien et en moyen français*, Genève: Droz.

Hamer, R. et Russel, V. (1989) « A Critical Edition of Four Chapters from the *Légende dorée* », *Medieval Studies* 51: 130-204.

Jacques de Voragine, *La Légende dorée*. Édition critique, dans la révision de 1476 par Jean Batallier, d'après la traduction de Jean de Vignay (1333-1348) de la *Legenda aurea* (c. 1261-1266) publiée par Brenda Dunn-Lardeau, Paris: Honoré Champion, 1997.

- 현대어역

보라기네의 야코부스, 『황금전설』, 윤기향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Reading on the Saints*. Translated by William Granger Ryan, 2vo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Jacques de Voragine, *La Légende dorée*.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Alain Boureau, Paris: Gallimard, 2004.

Jacques de Voragine, *La Légende dorée*. Traduction de J.-B. M. Roze, 2vol., Paris: GF-Flammarion, 1967 (1<sup>re</sup> éd., 3 vol., Paris, Edouard Rouveyre, 1902).

Jacques de Voragine, *La Légende dorée*. Traduction du latin par Teodor de Wyzewa, Paris: Seuil, 1998 (1<sup>re</sup> éd., Paris, Perrin, 1902).

- 연구서 및 논문

김준한 (2015a) 「프랑스 중세의 번역과 번역자」, 『프랑스문화예술연구』 52: 27-51.

김준한 (2015b) 「「이집트의 성 마리아전」 - 장 블레와 장 드 비네에 의한 중세 프랑스어 번역 비교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50: 87-128.

김준한·김지은 (2015) 「『황금전설』 프랑스어 번역사 연구 시론」, 『통번역학연구』 19(3): 179-208.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최효은 (2016) 「근대 기독교출판번역사 조사 :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2): 191-212.
- 홍용진 (2015) 「14세기 전반기 프랑스 왕권의 종교 텍스트 번역 - 필리프 6세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35: 103-138.
- Boureau, A. (1984) *La Légende dorée. Le système narratif de Jacques de Voragine*, Paris: Cerf.
- Burtler, P. (1899) *Legenda Aurea - Légende Dorée - Golden Legend. A study of Caxton's Golden Legend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relations to the earlier English prose translation*, Baltimore: John Murphy.
- Cerquiglini, B. (1989) *Éloge de la variante. Histoire critique de la philologie*, Paris: Seuil.
- Chavy, P. (1988) *Traducteurs d'autrefois. Moyen Age et Renaissance. Dictionnaire des traducteurs et de la littérature traduite en ancien et moyen français*, 2 vol., Paris/Genève: Champion/Slatkine.
- Dunn-Lardeau, B. (1986) «La contribution de J. Batallier à la traduction française de Jean de Vignay de la *Légende dorée*», *Legenda aurea : Sept siècles de diffusion*, Paris/Montréal: J. Vrin/Bellarmin, 183-196.
- Dunn-Lardeau, B. (1993) «Question d'édition critique d'une traduction et éléments de pré-humanisme d'après les variantes de *Légende dorée*», *Le Moyen français* 32: 83-93.
- Ferrari, B. (2008) «La *Légende dorée* dédiée à Béatrice de Bourgogne : premières hypothèses sur le modèle latin», T. v. Hemelryck et M. Colombo Timelli, *Quant l'ung amy pour l'autre veille. Mélanges de moyen français offerts à Claude Thiry*. Turnhout: Brepols, 403-410.
- Fleith, B. (1991) *Studien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der lateinischer Legenda aurea*, Bruxelles: Société des bollandistes.
- Fleith, B. (1993) «Le projet d'édition critique de la *Legenda aurea*», *Le Moyen français* 32: 49-52.

- Galderisi, C. (dir.) (2011) *Traductions médiévales. Cinq siècles de traductions en français au Moyen Age (XI<sup>e</sup>-XV<sup>e</sup> siècles). Étude et Répertoire*, Turnhout: Brepols, 2 vol. (3 t.).
- Guerinel-Rau, M. (2007) *La Légende Dorée conservée à la Bibliothèque Municipale de Rennes: Approche pluridisciplinaire et comparée du manuscrit 266, un exemplaire enluminé de la fin du 14<sup>ème</sup> siècle dans la version française de Jean de Vignay*. Thèse, Université Rennes 2 - Haute Bretagne/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 Hamer, R. (1993) «From Vignay's *Légende dorée* to the Earliest Printed Edition», *Le Moyen français* 32: 71-81.
- Knowles, C. (1954) «Jean de Vignay, un traducteur du XIV<sup>e</sup> siècle», *Romania* 75: 353-383.
- Le Goff, J. (2011) *A la recherche du temps sacré*. Paris: Perrin.
- Maddocks, H. E. (1990) *The illuminated manuscripts of the Légende dorée: Jean de Vignay's translation of Jacobus de Voragine's Legenda aurea*. PhD thesis, Department of Fine Art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Maggioni, G. P. (1995) *Ricerche sulla composizione e sulla trasmissione della "Legenda aurea"*, Spoleto: Centro Italiano di Studi sull'Alto Medioevo.
- Narr, S. (2010) *Die Legende als Kunstform. Victor Hugo, Gustave Flaubert, Émile Zola*, Munich: Wilhelm Fink Verlag.
- Paris, P. (1838) *Les manuscrits français de la Bibliothèque du roi II*, Paris: Techner.

[Abstract]

**A codicological study of a manuscript of *L gende dor e* (BnF fr. 241)**Kim, Junhan  
(Korea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tudy codicologically on BnF fr. 241, the 1348 manuscript of *Legenda aurea*. It contains that of Jean de Vignay of the French versions of *Legenda aurea* compiled by Jacobus de Voragine in the late 13th century.

First, I compared not only the editions of G. P. Maggioni (2007) and B. Häuptli (2014) but their critical apparatus with the manuscript BnF fr. 241. As a result, I could ascertain that the translation of Jean de Vignay is based on the text of the early  $LA_2$ , the later one of the two compiling periods of *Legenda aurea* ( $LA_1$  and  $LA_2$ ). I could make sure with the manuscript analysis that it shows undeniable similarities throughout to the Latin manuscripts V and E reflecting the text of  $LA_1$ , it is quite close to the manuscript Re of  $LA_2$  especially.

The manuscript BnF fr. 241, commonly called “P1” in the studies of *Légende dorée*, is the oldest of the manuscripts containing the version of Jean de Vignay, and it is also recognized textually as the best manuscript. In addition, it is the only version survived through the Jean Batallier’s revision in 1476 to the 16th century, and contributed to the diffusion of *Légende dorée* with the translation into European languages around. Now, at the time of requiring the critical edition of BnF fr. 241 in the history of French translation of *Légende dorée*, it has important significance to find out from this study that we should connect the version of Jean de Vignay to what point in evolution process of the Latin source text.

▶ Key Words: Légende dorée, Legenda aurea, Jacobus de Voragine (Jacques de Voragine, Iacopo da Varazze), medieval translation, codicology

김준한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연구교수

junhan@korea.ac.kr

관심분야: 번역사, 중세프랑스어 번역, 성인전 문헌 번역과 변용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7일